

科總

# 89년도 事業계획 및 예산확정

## 2월 28일, 제24회 定期總會 성료

### 90년부터 任期시작되는 次期회장에 權彛赫박사 선출



◇ 제24회 科總 장기총회가 2월 28일 4백여명의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사진은 朴泰源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월28일 하오3시 대한상공회의소 1층 국제회의실에서 제24회 정기총회를 열고 오는 90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次期會長에 權彛赫박사(〈주〉녹십자회장)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88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고 89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는데 금년도 사업의 기본방향을 ▲과학기술 정책 및 개발기능의 활성화 ▲기초연구 및 학회학술활동 육성지원의 효율성제고 ▲과학기술 정보교환및 학술활동진작 ▲과학기술품토조성 및 과학기술인 권익신장 ▲산학협동 및

원로과학기술자문단 사업확대 ▲과학기술 진흥센터건립, 박차 ▲21세기를 향한 科總장기발전 계획수립으로 정하고 이를위해 정책조사자문기능의 강화, 中國등 재외한국인과학기술자협회 설립지원 및 육성, 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학술회의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회원단체 연회비 조정(안)과 정관 일부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閔寬植 명예회장, 金東一 상임고문, 李祥羲 과학기술처장관을 비롯한 과학기술계 인사, 산하 회원단체 대의원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는 韓萬運 부회장의 「과학기술인 信條」 낭독으로 시작, 朴泰源 회장의 개회사, 李祥羲 과학기술처장관의 격려사에 이어 有功者에 대한 시상이 있는 다음 鄭助英 상임부회장의 회무보고 후 바로 議案 심의에 들어 갔다.

이날 朴泰源 과총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2천년대 이르러 경제, 사회, 문화 각 부문에 걸쳐 선진수준의 복지



◇ 이날 朴泰源 회장이 有功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 과학기술계뉴스

사회로 진입하고자 하는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의 혁신과 도약만이 최상의 관건』이라고 말하고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여건이 날로 어려워만 가고있는 현상황에서 우리들 스스로의 힘에 의해 과학기술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최우선 과학기술진흥시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회장은 따라서 학회 학술활동과 대학의 기초연구지원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 할 것이며 날로 확대되어 가고있는 국제화추세에 부응하여 학술정보의 교류와 기술협력은 물론 과학입국과 기술자립의 긴박성에 관한 온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청소년기부터 창조의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국민과학화운동의 효율적인 추진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회장은 이를위해 科總은 올해 ▲과학기술정책의 개발 ▲학회 학술활동 육성을 위한 지원 ▲과학기술정보교류 및 국제협력사업 ▲과학기술풍토 조성 및 과학기술인의 권익신장등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특히 금년에는 과학기술진흥센터의 건립계획을 마무리짓고 현재의 기구를 포함한 조직을 보완하여 1백만 과학기술인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선의의 압력단체가 될 수 있도록 과총의 위상



◆송회후 열린 축하연에서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왼쪽에는 박회장이 權차기회장, 韓萬運 부회장과 함께 科總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과 방향을 재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회장은 끝으로 『우리 모든 과학기술인들은 스스로가 국가발전의 향도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다듬고 국가와 민족이 우리에게 바라는바가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통감하면서 모든 국민의 의식속에 창조와 능률 그리고 합리의 정신이 심어지고 과학자와 기술자 그리고 기능인이 대우받는 풍토가 이룩되도록 다같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한편 李祥羲과기처장관은 격려사에서 『지난 20년간 科總은 우리 과학기술인들을 결집하고 과학기술계 현안문제들을 정책에 반영시키는데 힘쓰며 과학기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는데 노력해옴으로써 오늘날 우리 경제발전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原動力이 되어 왔다』고 전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는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

는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李장관은 특히 과기처에서 금년을 「기초과학의 원년」으로 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기초과학육성법」 제정과 기초과학육성에 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여론을 모으는데 힘써 줄것과 산·학·연이 일체가 되어 연구분위기를 조성하는 「국민연구공동체」 「국제연구공동체」 형성에 구심체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李장관은 科總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며 이러한것을 수행하기위해 科總에서 추진중인 과학기술진흥센터의 건립계획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權彝赫박사는 人事를 통해 『科總회장이라는 重責을 맡게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밝히고 앞으로 1년동안은 兪瞞하는 입장에서

## 과학기술계뉴스

科總육성과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權차기회장은 『보다 구체적인 구상에 대해서는 차후 밝히겠지만 科總은 학회의 활성화는 물론 국제학술대회의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과학기술계의 여론을 수렴해서 선의의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科總의 기능을 최대한도로 살려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有功者 표창도

한편 이날 총회석상에서는 연합회 각종사업 및 홍보보도 등으로 협조를 많이 한 ▲洪始煥씨(한국동굴학회회장) ▲徐廷旭씨(한국전기통신공사 사업개발단장) ▲文再慶씨(우림종합건설<주>사장) ▲金軫鎬씨(<주>과학신문사 사장) ▲李奉載씨(한국과학재단 사무총장) ▲鄭鎭益씨(과기처공보관) ▲林瑾洙씨(과기처 원자력개발과장) ▲盧永大씨(경향신문사 기자) ▲李桃浩씨(경제기획원 예산실 사무관)등 9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科總사무처의 裴鍾斗관리부장·權光仁편집과장보·李昌圭·嚴明先(총무부)·李在永(관리부)씨등 5명에게 장기근속표창패를, 金朝卿진흥부장·劉成垓진흥과장, 회원단체 사무국의 盧丙煥 한국구조공학회 사무국장·薛光洙 한국자동차공학회 사무국장에게는 표창패

가 주어졌다.

또한 총회가 끝난뒤 열린 축하연에서는 權彝赫차기회장이 朴泰源회장과 鄭助英상임 부회

장의 안내로 참석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진흥 및 과총육성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 權彝赫차기회장 略歷

權彝赫차기회장은 京畿道 金浦출신으로 47년 서울대의대, 56년 美미네소타대 보건대학원을 졸업한후 60년 서울大에서 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科總 이사, 부회장, 고문등을 역임한 權차기회장의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의대 조교수, 부교수, 교수(56~80) ▲동의과대학장(70~76) ▲동 보건대학원장(76~78) ▲동 병원장(79~80) ▲동 총장(80~83) ▲문교부장관(83~85) ▲한국교원대학교 총장(85~88) ▲보건사회부장관(88) ▲<株> 녹십자회장(89. 2~현재) ▲세계학술원 회원(67~현재) ▲WHO인력개발위원회 위원(80~현재) ▲미국 졸업후 의학교육원 자문위원(86~현재) ▲학술원회원(86~현재) ▲陵洞장학회이사장(87~현재) ▲韓·日협력위원회 상



임위원(87~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사(87~현재) ▲5.16민족상 심사위원(88~현재) ▲민정당 국책평가위원(89~현재)

◇주요著書 및 論文 ▲전염병관리(동명사, 62), 공중보건학(동명사, 63), 보건학개론(신광출판사, 76), 최신보건학(신광출판사 78), 한국인 혈액정상치에 관한 연구의 100여편

◇賞 ▲미국자유훈장 ▲3·1문화상 학술상 ▲학술원상 저술상 ▲국민훈장 무궁화장



◇ 임총의 여지없이 총회장을 꼭메운 과학기술계 인사들.

# 出捐연구소 發展 방안 모색

## 새 位相 정립위한 討論會 개최



◇ 出捐연구소의 새 位相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가 관계인사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大德 한국표준연구소 강당에서 열렸다.

「2천년대 國家목표와 出捐 연구기관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2월14일 忠南大德 韓國標準 연구소강당에서 李祥羲과기처 장관을 비롯 出捐연구기관장, 각출연연구소의 직급별, 직종별대표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出捐 연구소의 새로운 位相정립을 위한 열띤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李祥羲과기처 장관은 「2천년대 國家목표와 과학기술정책」이라는 기초연설을 통해 『2천년대의 민주화, 복지화, 지방화, 국제화시대라는 다원적인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국민연구공동체시대의 개막」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국가발전체계를 모방에서 창조로 전

환 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장관은 또 『정부는 각계의 합의를 얻어 과학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경제사회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가능한 자율화의 기초위에서 규제를 최소화하고 연구개발활동의 가속화를 촉진할 유리한 여건조성과 제도마련등 하부구조 구축에 주력해 나가고 기초연구의 활성화, 전국토를 과학기술로 유기화하여 전국토를 균형개발하는 테크노벨트의 구축, 91년 국제박람회와 이를 확대 발전시킨 宇宙첨단 기술올림픽 개최추진,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 복지기술개발등 공공복지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어 최근 큰 관심

사의 하나로 대두된 出捐연구기관의 勞使문제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의 설문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정부는 연구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인은 과감하게 제거 및 개선해 나가고 보다 나은 연구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효과적인 인센티브제도, 연구소간 정보교환 및 인적교류의 활성화, 出捐연구소의 자율성확대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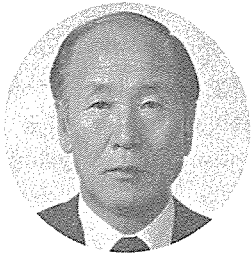
또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出捐연구기관의 부처간 이관에 대해 『대부분의 의견은 현행체계를 선호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떤 부처의 소관이라는 개념을 탈피하여 전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연구공동체」화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 국기계연구소 徐相箕책임연구원이 「국책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부출연연구소의 위상」 한국화학연구소 姜澈勳 연구원이 「연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한국동력자원연구소 金完泰기능원이 「기술기능직의 활성화와 제언제도」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李鍾郁소장이 「국책연구사업의 평가에 관한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소 朴恒九선임연구위원은 대형연구개발과제 추진사례발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개발 성공사례중의 하나인 「순전자교환기(TDX)개발사업」을 소개했다.

## 李相洙박사 選任

### 科學技術院 第6대 院長에

韓國科學技術院은 2월22일 이사회를 열고 제6대 원장에 李相洙박사(64·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교수)를 선임했다.



〈신임 李相洙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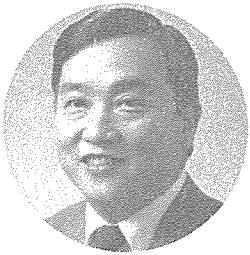
신임 李원장은 1949년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59년 영국의 런던대학원에서 이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화여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원자력연구소장, 원자력청장, 한국과학원 초대원장등을 역임했으며 7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로 재직해 왔다.

주요저서로는 「레이저광학」 「광학」 「원자력탐사」등이 있다.

鄭根謨 아주대교수

科學財團 이사장에



〈신임 鄭根謨이사장〉

韓國科學財團은 2월2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제5대 이사장에 아주대 鄭根謨석좌교수(50

세)를 선임했다.

신임 鄭 이사장은 59년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63년 미국 미시건주립대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원자력원장 보좌역, 미 플로리다대조교수, 프린스턴대·MIT 연구원, 과학원교수·부원장, 뉴욕공대교수를 거쳐 87년부터 아주대 석좌교수로 재직해 왔다.

제2대 소장에 文信行박사

天文宇宙과학연구소

韓國電子通信연구소 부설  
天文宇宙科學연구소는 2월21

일 제2대 소장에 文信行국방 과학연구소 玄武體系실장을 선임했다.

新任 文소장(47세)은 忠南출신으로 65년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76년 美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대에서 Ph.D를 획득했으며 77년부터 현재까지 국방과학연구소 현무체계실장으로 재직해 왔다.

金正奭 전산실장 승진  
企業기술지원센터 所長에

韓國機械연구소 부설 기업기술지원센터 2대소장에 金正奭 전산실장이 2월21일 선임됐다.

金소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68년부터 기계연구소에서 유럽사무소장, 외국인증부장, 전기시험 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 母国 과학기술단체와 協力강화할터

### 趙漢喆 在카나다 科技協회장 밝혀

在카나다 韓國 과학기술자협회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카나다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과학기술자들의 동정을 파악하는등 회원확보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금년 1월 동협회 새회장으로 취임한 趙漢喆박사(60세·Connaugh 연구소 연구원)는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금년중에 온타리오를 비롯, 에드먼튼, 오타와, 토론토 등지에 지부를 결성토록 하는 한편 전문분야 분과위원회를

설치, 학술활동을 진작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회장은 또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는 물론 한국의 과학기술관련 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모국의 과학기술 및 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동협회의 89년도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 조한철 ▲차기회장 = 윤지원 ▲부회장 = 이현하 ▲총무 = 김중호 ▲재무 = 장인호 ▲편집 = 이현하

# 月城原電 완전 國産 핵연료 사용

## 지난해부터 重水爐 핵연료 전량 國産化

국내유일의 加壓重水爐型인 月城원자력발전소는 금년부터 100% 국산핵연료를 사용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에너지의 자립도를 높이게 되었다.

3월4일 月城원자력발전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月城원전은 연간 약 100톤(5,300다발)의 핵연료를 쓰고 있는데 제작자인 한국에너지연구소가 83년부터 86년까지 국산핵연료의 시제품을 제작, 실증시험에 성공함에 따라 87년부터 연료 일부를 공급해 왔으며 88년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가 현재는 중수로 핵연료전량을 완전 국산화하게 되었다.

고리, 영광, 울진 등 가압경수로형 원자료가 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데 반하여 월성원전은 천연우라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에너지연구소는 호주와 캐나다에서 우라늄 정광을 수입해다 이를 원자로에 장전할 수 있도록 성형가공 공정을 맡고 있다.

원자력발전을 준국산에너지라 일컫는 것은 발전原價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4.8%에 불과할 뿐아니라 중수로 핵연료와 같이 원료만 들여와서 100% 국내에서 제작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산핵연료는 품질이 우수하여 종전에 캐나다에서 공급받던 핵연료가 0.1%의 결합연료를 발생시키는데 반하여 국산핵연료

는 이제까지 한건의 결합연료도 발견되지 않아 설비 및 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다.

### 研究·시험學校 운영

### 文敎部, 전국 63개교 指定

文敎部는 금년도 연구·시험·시험학교로 63개교를 지정하는등 전국 연구·시험학교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문교부가 마련한 전국 연구·

시험학교운영계획에 따르면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새마을교육등 정부시책 관련영역을 폐지하고 교육평가 영역을 신설하는등 연구과제를 교과영역위주로 편성,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교육, 국민정신교육영역이 가치관교육으로 바뀌고 교련, 정확, 자격시험이 폐지되고 월반·유급 전산교육, 학습지도, 교육평가, 교수·학습, 기술·가정교육, 생활지도영역이 신설됐다.

## 光州연구단지 建設을 本格착수

### 科技處, 건설용역 자문단도 구성

科學技術處는 光州첨단과학 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등 관계 전문가 9명으로 「광주 첨단과학 산업연구단지 건설용역자문단」을 구성하고 2월9일 그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자문단은 광주연구단지 건설과 관련된 용역사업의 계획, 용역대상기관의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사항 심의, 용역수행내용의 조정 및 평가등 제반관련사항을 심의하여 과학 기술처장관에게 자문하게 된다.

科技處는 오는 8월까지 광주

연구단지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조사 및 환경, 교통영향평가등을 거쳐 올 하반기중에 기본설계작업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번에 구성된 위원은 다음과 같다.

- ▲朴勝德과기처 기술정책실장(위원장)
- ▲朴景煥건설부 도시국장
- ▲徐正萬과기처정책 기획관
- ▲金興來광주직할시 기획관리실장
- ▲金安濟서울대 환경대학원장
- ▲朱鍾元대한국 토계획학회장
- ▲宋仁城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장
- ▲李廷植국 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金炯珠한국기술용역협회장

# 未修交 公産권과 技術協力 확대

## 科技處, 對外기술 供與사업계획 확정

科學技術處는 금년도 정부대 외기술供與사업계획을 확정했다.

科技處는 총 18억4천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훈련생초청 4백50명, 전문가파견 80명, 개발조사사업 2건등을 추진키로 했다.

과기처는 특히 제6공화국의 北方外交정책방향에 부응하여 東歐圈국가와의 과학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협력조사단을 헝가리등에 파견하고 중국, 체코, 폴란드, 베트남등의 未修交國으로부터 통신망설계, 공업소유권제도, 약물검사분야에서 25명의 훈련생을 초청, 훈련시킬 계획이다.

또 지난해 대통령 亞·太지역 4개국순방 후속조치로 우리나라와 아세안간의 과학기술분야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단을 파견하고 말레이시아 동방정책을 적극지원하며 단편적인 훈련생 초청 또는 전문가 파견이외에 콜롬비아 기술개발 연구소 설립지원등 프로젝트형태의 사업을 확대하여 開途國의 국가개발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아시아·태평양경제 사회위원회(ESCAP),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등과 공동비용 부담방식의 기술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기구와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훈련생 초청국가는 아시아지역 28개국을 비롯 아프리카 32개국, 중동 16개국, 중남미 28개국과 헝가리·체코·폴란드등 동구권 3개국이며 우리나라 전문가를 파견할 나라는 아시아지역 12개국, 아프리카 9개국, 중동 6개국, 중남미 9개국이다.

과기처는 앞으로 기술공여사업을 기술협력에 자본협력을 연계하거나 개발조사사업을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적 진출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개도국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주거나 여러협력형태를 묶어 제공함으로써 투자수요를 유발시켜 나갈 작정이다.

## 電子분야 연구결과 發表 科技處, 特定연구과제중

科學技術處는 2월28일 경희대학교 체육대학관에서 電子분야 특정연구과제 가운데 87년도 후반기에 연구 착수된 28개 과제의 연구결과논문 41편에 대한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소프트웨어기술분야에서 「Unix시스템에서의 한글 구현에 관한 연구」의 7편, 계측제어기술분야에서는 「직기시설 자동화기술」의

4편, 컴퓨터기술분야에선 「고속분산처리시스템중 자원공용 분산운영체제」의 2편, 통신기술분야에서 「연결된 광축폭기들을 이용한 광전송시험연구」, 천문우주과학분야에서 「Main-frame 컴퓨터를 활용한 위성영상처리 소프트웨어개발」의 9편, 반도체기술분야에서 「다목적공동설계연구」의 13편등 모두 6개분야에서 41편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 技術고문관제 도입

### 工振廳, 중소기업대상

工業振興廳은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 연구기관등에서 박사학위나 기술사자격이 있는 고급기술인력을 기업의 기술고문으로 선임해 중소기업의 신기술개발 품질향상에 필요한 애로기술에 대한 기술지도, 자문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진청은 우선 올해 50개 중소기업을 기술지도 대상업체로 선정, 기술고문제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면서 업계의 반응을 검토한후 대상업체 기술지도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技術協力세미나 개최

### 産技協, 日무역진흥회와

韓國産業技術振興協會(회장 金塚謙)는 3월24일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日本貿易振興會와 공동으로 제3회 국제기술협력세미나를 개최한다.



# 優秀發明人 선정, 포상

發明特許協, 5월 19일, 全國발명장려대회 開催

· 韓國발명특허협회(회장 金生基)는 오는 5월19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제24회 발명의 날 기념 全國발명장려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에서는 발명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有功者를 포함한 우수발명인과 모범적인 特許관리를 한 기업체를 선정, 포상한다.

포상의 종류는 산업훈장과 산업포장, 표창등으로 개인과 단체로 구분, 수여되는데 동협회는 포상후보자신청을 3월15일까지 협회 발명진흥부(전화 557-1088)에서 받고 있다.

## 發明장려관 확장 移轉

동협회는 발명인구의 저변확대와 발명품의 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발명장려관을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 전시동 별관2층(257평규모)으로 오는 4월까지 확장 이전한다.

## 基礎電力공학研 起工

서울大 관악캠퍼스내

서울大學校는 3월7일 趙完圭 총장, 李鳳瑞동자부장관, 安秉華한전사장등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 기초電力工學연구소(이사장 安秉華) 건립 기공식을 가졌다.

이 연구소는 서울大 관악캠

퍼스내 연건평 1천48평의 5층 규모의 건물로 오는 11월 완공 예정인데 韓電에서 80억원을 출연, 공사비로 22억원, 연구기자재 구입에 48억원 등이 충당된다.

## 을 補修教育 실시

職業訓練관리공단

韓國職業훈련관리공단(이사장 李憲琦)는 84년1월1일 이후

기술사, 기사1,2급, 기능장, 기능사 1급의 國家技術자격 취득 등록자를 대상으로 금년도 補修教育을 실시한다.

이번 보수 교육은 기능장은 7월27~28 양일간 창원기능대학에서, 기사1급은 5월25~26일 공단본부 및 상설검정장에서 실시한다.

새 회장에 宋柄南씨

소프트웨어 産業협회

韓國소프트웨어 산업협회는 2월17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입회장에 宋柄南 유니온시스템 사장을 선출했다.

## 碩士 497명, 博士 92명 탄생

科技院 제15회 학위수여식서

韓國科學技術院 제15회 학위 수여식이 2월17일 KAIST 서부지역 잔디밭에서 거행돼 박사92명(理博 26, 工博 66명)과 석사 497명(이학석사 98명, 공학석사 399명)등 총 589명의 고급과학기술인력이 탄생했다.

이로써 석사는 75년 이후 5,281명(전문석사포함), 박사는 78년 이후 645명이 배출되어 지금까지 국내이공계박사의 15%를 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배출된 박사92명의 전공별분포를 보면 전기 및 전자공학이 22명으로 가장 많고 화학 12명, 물리학 11명, 재료공학 9명, 화학공학 8명, 기계

공학(항공공학포함) 7명, 전산학 6명, 산업공학 및 생산공학 각각 4명, 생물공학 및 경영과학 각각 3명, 핵공학 2명, 토목공학 1명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들중 69.6%인 64명이 20대 박사로서 그동안 배출된 645명의 박사중 66%인 424명이 20대에 박사학위를 받아 KAIST는 20대박사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최연소 박사는 만 26.4세에 학위를 취득한 생물공학과 李承哲씨이며 20대박사의 나이별로는 26세가 5명, 27세 17명, 28세 23명, 29세 19명등이다.



## 과학기술계뉴스



### 한국식품과학회

지난해 창립20주년을 맞아 成年학회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있는 韓國食品科學會(회장 權泰完)는 그 여세를 몰아 올해도 우리나라 식품과학의 발전과 그 응용 및 보급에 기여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産·學·研 및 정부와 협동으로 식량의 생산, 가공 및 이용분야의 기술발전에 진력하고 식품공업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계몽에 적극 참여한다는 기본방침아래 목적사업들을 하나 하나 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학회의 얼굴인 「한국식품과학회지」를 격월로 발간, 회원은 물론 식품산업관련단체등에 배포하고 이와 병행하여 기술보급지로서 「식품과학과 산업」지를 年4회 발간하여 관련분야의 연구동향, 최신기술등에 대한 총설과 정보자료를 게재함으로써 식품과학기술보급에 일익을 담당할 작정이다.

또 춘계학술발표회는 5월27일 강원대학교(예정)에서, 추

계학술발표회를 11월초순경에 개최하고 「녹차」「가공식품의 안정성」「장류의 전망」에 관한 심포지움을 세차례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산하분과위원별로 워크숍 및 강좌도 개최할 계획이다.

동학회는 특히 올해에 강원지부를 창설, 강원도내 식품과학관련인사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한국수문학회

韓國水文學會는 2월18일 잠실코아 오피스텔회의실에서 제23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회장에 尹錫吉씨(수자원시설보수<주>사장)를 선출하고 부회장은 金永煥(건설부 수자원국장)·尹龍南(고려대 토목공학과 교수)·李舜鐸(건설부 중앙하천관리위원)씨를 각각 선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금년도 학회상수상자로 沈淳輔씨(충남대 교수)·李正圭씨(한양대 교수)에게 학술상을, 李成龍씨(동아건설산업<주>상무이사)·韓相昱(농업진흥공사 사업본부장)·金榮河씨(한국수자원공사 댐관리본부장)에게 기술상을 각각 수여하고 金亨洙전남대교수와 李載明건설부 수자원국장에게는 공로상을, 金兢烈유신설계공단회장과 朴桂秉서울시 치수과장에게는 감사패를 각각 수여했다.

이밖에도 정관 일부개정(안)

과 8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키고 李成龍씨(동아건설산업<주>상무이사)의 「陝川 다목적댐의 定置式 Jib Crane에 의한 댐 축조공법」에 관한 특별강연이 있었다.

### 한국기술사회

韓國技術士會(회장 金慶植)는 올해도 技術士의 처우개선 및 활용과 권익향상을 위한 관계법제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日本技術士會와 함께 韓·日합동산업시스템공동조사연구사업을 실시키로 함에 따라 산업구조의 현장조사, 지역특성과 산업구조의 적정화 검토연구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韓·日합동 기술사 심포지움의 지속적인 개최는 물론 해외기술협력을 위한 기술교류와 정보교환을 위한 해외산업시찰도 가질 작정이다.

이밖에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합격한 기술사에 대한 신규등록업무 및 보수교육을 통한 갱신등록업무를 수행하고 기술사들의 국가관을 고취하고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補修교육을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 과학기술계뉴스

### 대한약사회

大韓藥師會는 2월25일 약사회관에서 제3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27대 회장에 金明燮 회장을 재선출했다.

文太後보사부장관등 내빈과 대의원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또 의료보험 및 의약분업정책에 역점을 두도록 하는 울 사업계획과 10억8천4백여만원 규모의 금년도 예산을 확정지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최종 이사회에서 결의된 1단계 의약분업안 관철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의약분업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능동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또한 부회장등 상임이사진과 이사선출을 신입회장에게 위임시켰으며 회원들의 회무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95명이내로 되어 있는 이사수를 1백50명이내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 대한교통학회

大韓交通學會는 2월18일 도로교통안전협회 강당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제3대회장에 林岡源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부회장에 李仁遠홍익대도시계획학과 교수, 姜渭勳전익기술연구단사장, 金大雄영남대도시공학과교

수를 선임하고 李一炳전임회장을 명예회장, 李壽수전임부회장을 고문으로 각각 추대했다.

한편 총회와 함께 실시된 학술발표회에서는 「도시인구의 공간적분포와 가로망의 접근도 분석(김형철 / 경원대)」 등 세 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 한국원예학회

韓國園藝學會는 2월11일 경희대학교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새회장에 全在琪교수(경북대 농대), 부회장에 韓秉熙씨(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朴興燮씨(전남대 농대)·崔桂堅씨(중앙종묘<주>))를 각각 선출했다.

### 공기조화·냉동공학회

空氣調和·冷凍工學會(회장 崔相弘)는 금년에도 공기조화 냉동공학 및 위생공학에 관련된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를 비롯 공조 냉동 및 위생공학에 관한 표준 및 규격의 제정, 외국관련기관과의 기술정보교류사업등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올해부터 기존 학회지와 병행하여 논문집을 발간, 공기조화·냉동공학 및 위생공학분야의 학술진흥과 기술발전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는 한편 오는 8월27일부터 9월1일까지 유고의 사라예보에서 개최되는 제2회 세계공조냉동학술

대회 및 전시회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5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논문발표회를, 8월에는 울산지역에서 하계 특별강연회를 개최하고 공조부문위원회를 비롯 5개부문위원회별 학술강연회 및 발표회를 9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기초공학강습회 등 각종 강습회를 7차례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 한국조경학회

韓國造景學會 금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에서 신입회장에 孫昌求교수(동국대 자연대학장)를, 부회장은 金貴坤(서울대 조경학과교수) 李基誼(강원대 녹지조경과교수) 劉相植(효자종합조경 대표이사) 씨를 각각 선출했다.

총회에 이어 실시된 학술논문발표회에서는 서울대 金貴坤교수의 「중국 전통조경의 특징: 북경시의 頤和園을 중심으로」한 특별연구발표와 10편의 일반 논문발표가 있었다.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韓國原子力産業會議는 2월21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10대회장에 安秉華한국전력사장을 선출하고 韓榮成과기처 원자력국장·辛基泮한국전력기술사장·李匡根한국중공업사장·李敎璿한국전력보수사장을 이사로 보선했다.

## 과학기술계뉴스

### 한국주조공학회

韓國鑄造工學會(회장 안斗植)는 오는 5월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日本 大宮시에서 열리는 日本주물협회 제115차 전국강연대회 및 공장전학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 행사는 동학회가 국제주물기술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의 하나이다.

### 한국금속표면공학회

韓國金屬表面工學會(회장 李柱性)는 국립공업시험원과 공동으로 제3회 아시아表面處理포럼을 오는 9월25~27일 3일간 한국종합무역센터에서

개최한다.

날로 발전하는 표면처리기술에 관하여 아시아 각국의 최신 연구결과 및 기술향상사례등을 발표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이번 포럼에서는 「장식도금(전기도금, 양극산화등)」「무전해도금(인쇄회로기판, 자기박막등)」「전처리」「광학 및 전자관련 표면기술」「진공 및 프라즈마기술」「유기물의 도장기술」「새로운 표면피복 및 복합도금재료」「환경문제」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 대한해부학회

大韓解剖學會(회장 羅鳳鎭)는 신체 각부위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쳐 만든 새로운 「

解剖學용어집」을 3월말경 출간할 예정이다.

동학회 해부학용어 심의위원회(위원장 白相豪서울대의대교수)는 만 10년에 걸쳐 2만 단어의 해부학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작업을 실시, 의학용어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해부학용어를 알기쉬운 우리말로 고쳐 한자용어에 익숙치 않은 젊은 의학도와 일반인들의 의학 및 의술에 대한 이해를 크게 돕게 되었다.

### 한국과학사학회

韓國科學史學會(회장 李燦)는 오는 8월1일부터 9일까지 독일 Hamburg와 Munich에서 열리는 제18차 국제과학사학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들의 참가신청을 받고있다.

## 科總회원단체 3월 학술행사계획 일정

단체명	대표자	행사명	일자	장소
대한전자공학회	이충웅	통신용 Relay구조 및 활용 기술단기강좌	3.3	자동차공업회관
한국농공학회	이희영	정기총회	3.4	과학기술회관
한국고분자학회	안태완	고분자기기분석세미나	3.8~10	한국과학기술원
공기조화냉동공학회	최상홍	냉동부문학술 강연회	3.9	과학기술회관
공기조화냉동공학회	최상홍	규격제정발표회	3.17	과학기술회관
대한기계학회	손명환	재료 및 파괴부문학술강연회	3.18	한국기계연구소
한국기술용역협회	김형주	프로포잘작성기법세미나	3.23~24	건설회관
대한건축학회	박윤성	역사위원회세미나	3.24	과학기술회관
한국잠사학회	유근섭	총회 및 학술발표회	3.24~25	국립생사검사소
대한토질공학회	김상규	총회 및 특별강연회	3.25	한국학술진흥재단

## 과학기술계뉴스

### 한국농업기계학회

韓國農業機械學會(회장 崔圭洪)는 2월13일 건국대학교에서 금년도 동계 학술발표회를 개최, 한국기계연구소 황헌박사의 「Machine vision과 robotics의 농업적이용」에 관한 특별강연과 24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동학회는 또 14~17일까지 4일간 서울대 농과대학에서 「계측 및 마이크로 컴퓨터 활용 기술」에 관한 동계 기술 강습회도 개최했다.

### 한국조경학회

韓國造景學會(회장 孫昌求)는 학회사무실을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103 서울대 농대 조경학과내로 옮겼다.

전화 <0331>44-2120(交 383), 서울연락사무소(광화문 일양빌딩내 효자종합조정) : 736-3-314, 735-3626.

### 대한토질공학회

大韓土質工學會(장 金翺圭)는 3월1일 학회사무실을 서초구 서초동 1445-15(진로유통빌딩 13층)으로 옮겼다.

전화 585-4425

### 대한건축학회

大韓建築學會(회장 朴胤成)는 2월17일 학회회의실에서 한국건축사학의 전망(양식과 시대구분의 문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건축사에 있어서 양식분류에 관하여」와 「시대구분에 대하여」

등 2개분야로 나눠 관계전문가들의 의견교환이 있었다.

### 한국고분자학회

韓國高分子學會(회장 安泰玩)는 3월8일~10일 3일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11회 고분자기기분석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분석총론」 「DNA」 「NMR」 「GPC」 「열분석」 「X-Ray Diffraction」 「Rheometry」 「IR」 「Light Scattering」을 주제로한 강의와 기기분석시범이 있었다.

### 한국과학교육학회

韓國科學教育學會(회장 金昌植)는 학회 사무실을 성북구 정능동 861-1 국민대학교 사범대학 물리학교육과내로 옮겼다. 전화 914-3141(交 730)

### 技術地帶網 조성 촉진법

#### 特別法으로 제정方針

科學技術處는 전국토의 기술지대망(테크노벨트)조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기술지대망 조성촉진법(안)」(가칭)을 特別法형태로 제정할 방침이다.

李祥羲과학기술처장관은 3월7일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韓國科學著述人協會 주최 강연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내달중순까지 법 초안

작성을 마치고 5월경 공청회·관계기관협의·임법예고등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基礎과학에 32억 투입

#### 施設확충·敎員연수 강화

서울市敎育위원회는 올해 기초과학교육진흥을 위해 32억8천1백64만2천원을 투입, 실험실습교구등 시설확충과 교원들의 실험연수교육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市敎委會는 올해 國敎 400개교, 中學校 190개교에 대한

실험실습 교육확충을 위해 5억2천3백84만2천원을 투자하고 초·중·고 등 모두 647개교에 실험실습재료비지원을 위해 11억4천1백26만원을 책정했다.

또한 초·중·고교컴퓨터교육담당교사 1,724명에 대한 연수비로 7천7백24만2천원을 지원하고 초·중·고교 3,938명의 과학교사 실험연수 교육비로 1억9천8백98만8천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6억3천2백24만원을 들여 초·중·고교 및 연구소등에 1,336대의 컴퓨터를 설치할 계획이다.